

태웅 044490

탐방노트 - SMR 소재 수주 시작

●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주기기 제작에 들어가는 SMR, 이제 소재 발주가 나온다

글로벌 SMR 프로젝트들이 계획을 넘어 착공 단계로 넘어가면서, 소재에 대한 발주가 시작. 이미 동사는 2025년 2월 GE-Hitachi로부터 주단조 소재 계약을 체결. 보조기기 소재로 금액은 크지 않으나 SMR 레퍼런스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 2026년 상반기에는 또다른 북미 프로젝트로부터 주기기 소재 공급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다 유의미한 규모(수백억원 예상)일 것으로 판단. 또한, 후쿠시마 원전 해체 사업 관련 Cask 사업 수주도 1Q26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주기기 제작사 중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주단조 소재 생산하는 회사가 제한적. 이들은 동사를 비롯한 주단조 회사와 협력 필요. 동사는 미국기계산업협회 에서 발급하는 ASME 인증과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 이를 기반으로 GE-Hitachi, BWX Tech, Holtec, Terrapower 등 주기기 제작사 및 기술 개발사 등과 협력 관계를 이어오는 중

20년 만에 주단조 슈퍼 사이클 돌아올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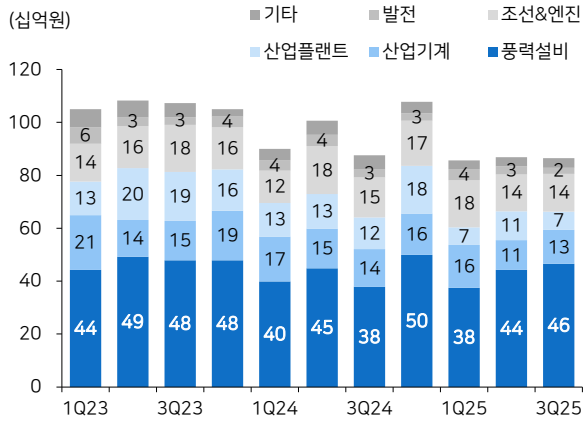
원전, SMR 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도 주목. 2020년대 후반부터는 주단조 소재 경쟁사인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원전, SMR 제작에 소재 역량을 집중하게 될 전망. 반면 선박 교체 사이클 도래로 조선항 주단조 소재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조선사에 대한 동사의 가격 협상력이 커질 전망. 두 개 회사와 현대IFC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주단조 경쟁사는 제한적. 2007~2008년 영업이익률이 17%에 달했던 과거 사례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음

설비 업그레이드로 단기적인 실적 부진 예상되나, 걱정할 이유는 없다

단기적인 실적 전망 눈높이는 낮출 필요 있음. 현재 매출액의 약 절반을 설명하는 링밀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플랜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최근 대형화된 해상풍력 수요에 대응하여 설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약 5개월 가동을 중지. 이러한 영향으로 3Q25 영업이익은 7억원 (vs 2Q25 48억원)으로 악화. 4Q25에도 부진한 실적 이어질 전망이며, 2Q26부터 정상화 예상

현재 유럽 해상풍력 수요는 건조한 상황이며, 국내 해상풍력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2026년에는 풍력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도 기대

그림1 부문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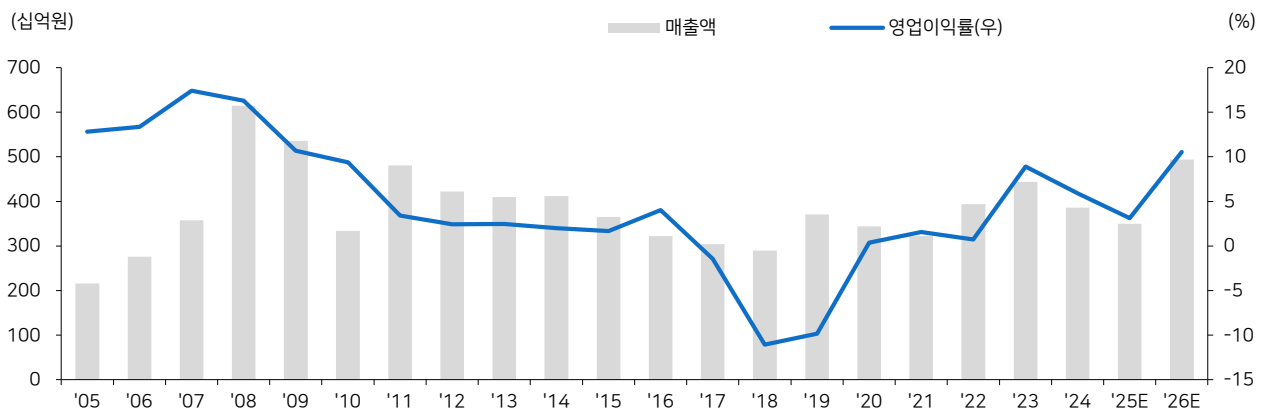
자료: 태웅,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태웅의 원자력 관련 제품들



자료: 태웅,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태웅의 장기 실적 추이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